

02

기본공사하기

기본 공사는 화장실의 유지보수를 최소화 하고,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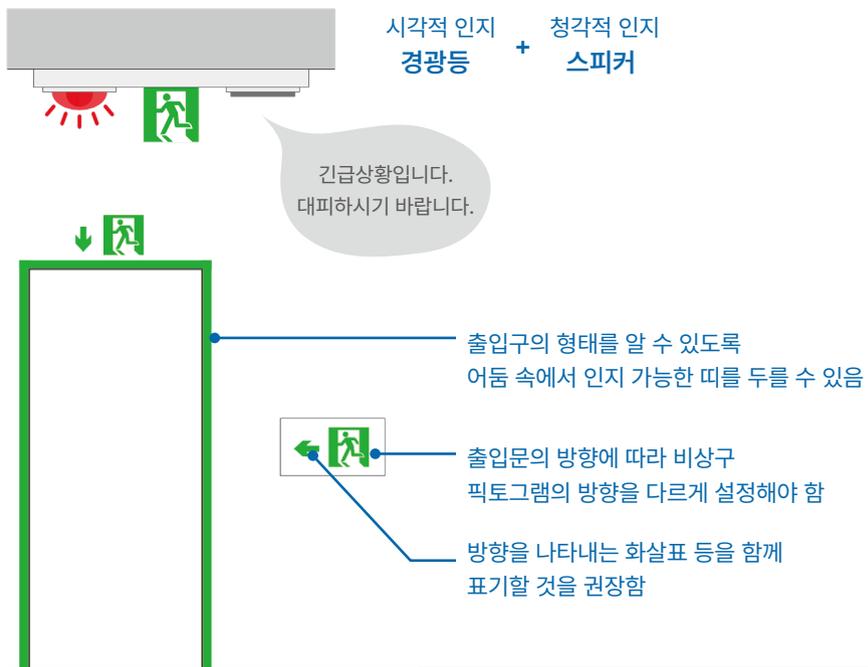
1) 소방/대피	022
2) 설비/배관	023
3) 환기/냉난방	024
4) 바닥레벨	024
5) 조명	025
6) 자재	026
7) 색채	027
8) 식재	027

1) 소방/대피 UD

시각장애인, 청각장애인 및 대변기 부스 내에 위치한 사람도 **시각 및 청각으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경보기를 설치한다.**



- 비상상황 시 화장실 내부에서도 상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대피용 안내표지판은 우선적으로 설치한다.
- 대피로는 화장실 출입구에서부터 연결되어 보이도록 조성한다.
-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적절한 소방시설을 설치한다.



❓ 휠체어 사용자는 어떻게 대피하나요?

휠체어 사용자는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탄한 곳을 통해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도사인에 휠체어 마크를 표기해 주고, 불가능할 경우 제연이 가능한 곳에 휠체어 대기공간과 비상통화장치 등을 설치하여 구조를 기다릴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.



2) 설비/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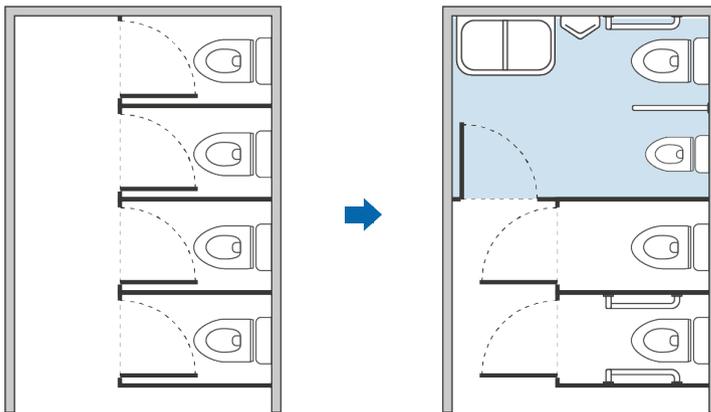
화장실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므로 수도 공급 및 배수 시스템 설계 시 모든 위생기구가 동시에 사용되는 것을 기준으로 용량을 산정한다.



-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「하수도법」에 따라 처리한다.
- 배관은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.
- 모든 수도관과 탱크는 동파와 세균에 의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적절하게 단열되어야 한다.

❓ 리모델링 시 배관을 바꿀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?

리모델링 시 배관의 위치는 변경이 어려우므로 기존의 것을 사용하며, 공간 개조 시에는 칸을 합쳐 화장실의 기능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


2칸을 합쳐서
1칸으로 만들고
이를 장애인용
화장실 혹은
영유아동반형
화장실 등으로
조성할 수 있음

3) 환기/냉난방

환기와 냉난방이 잘 된 쾌적한 환경은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남용될 가능성이 적으며, 사용자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준다. 이는 발달장애인 등에게 자극적이지 않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.



-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, 환풍시설을 설치해야 한다.
- 쾌적한 공기 순환을 위해 화장실은 외기와 면하게 하고, 복합형 환풍장치를 설치한다.
- 충분히 환기가 되는 상황에서 출입구 인근에 방향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.

4) 단차 UD

화장실의 진입로는 단차가 없어야 하며, 바닥구배는 최대한 완만한 기울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. 또한, 줄눈 틈새를 최소화하여 걸려 넘어질 우려를 줄여야 한다.



- 단차를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사로 설치를 고려할 수 있으나, 경사 각도가 1/18 이상이 될 경우 접근 가능한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단차가 있는 곳에 안전손잡이를 부착할 것을 권장한다.
- 바닥에 물청소를 할 경우 바닥구배는 1/100 이하로 최대한 완만한 기울기가 되도록 하고, 출입문 방향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시공한다.
- 배수구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각장애인, 지체장애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평탄하게 시공한다.
- 타일 혹은 판석마감의 경우 줄눈 틈새 등을 최소화하여 걸려서 넘어질 우려를 줄이고, 청소에도 용이하도록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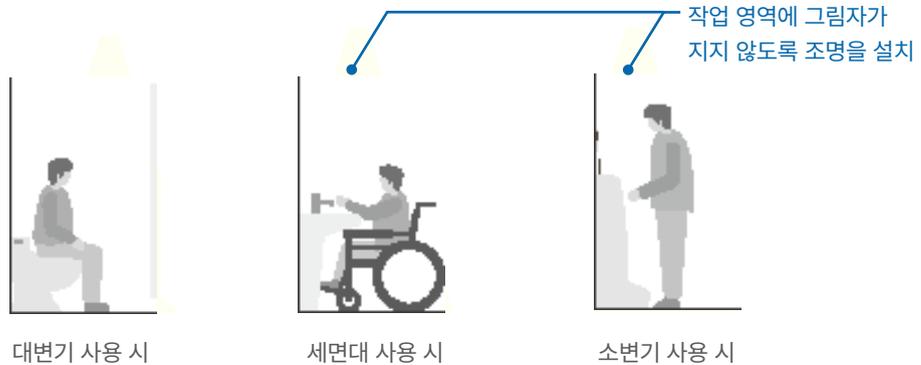


5) 조명 CP

저녁 시간이나 흐린 날을 기준으로 조도 기준을 적용하여 인지성을 향상시킨다. 화장실 출입구, 통로, 대변기 부스, 세면대, 소변기 등에 적절한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구역별 적정 조도를 확보한다.



- 조명은 조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길 안내와 화장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.
- 조명은 음영이 지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접조명을 권장하며, '에어텍글라스(광확산판)' 등을 사용하여 빛이 분산될 수 있도록 시공한다.
- 실내 마감재와 어울리는 조명등과 색상을 고려하여 적절한 색온도(4,000K~4,200K)의 전구 사용을 권장한다.
- 조명은 발열량이 적고 고효율인 LED 조명기구를 활용하도록 한다.
- 조명 스위치는 관리자만 조절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, 움직임 센서를 설치하여 사용자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소등될 수 있도록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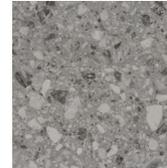


6) 자재 UD

마감재는 오염에 강하고 자국, 흠집이 생기지 않는 내마모성이 우수하며 미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마감재를 사용한다.



- 바닥은 물에 닿아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.
- 바닥마감재는 청소하기 용이하도록 틈새가 적고 파손 시 마감재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며, 대비, 반사가 심한 재질은 사용하지 않는다
- 대체로 흰색인 위생도와 대비되는 색으로 된 마감재를 사용하여 인지성을 높일 수 있다.
- 화장실 바닥 타일은 300×300(mm), 400×400(mm) 등 정사각형 타일을 사용하며, 줄눈은 3mm 이하로 한다. 대변기 칸막이와 경계를 같이하여 최대한 낭비를 줄이고 정돈되어 보이도록 한다.

도기질 타일	자기질 타일	폴리싱 타일	포세린 타일	테라조 타일
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벽타일로 사용 - 700°C에서 소성 - 물 흡수율 높음 	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바닥타일로 사용 - 1,350°C에서 소성 - 물 흡수율 낮음 			
내구성 ★ 미끄럼 ★★★★★	내구성 ★★★ 미끄럼 ★	내구성 ★★★ 미끄럼 ★★★★★	내구성 ★★★★★ 미끄럼 ★	내구성 ★★★★★ 미끄럼 ★

❓ 테라조 타일은 아무제품이나 사용해도 되나요?

테라조 타일은 충격, 화재, 마모 등에 강한 내구성을 가져 유지보수에 용이하며, 다양한 색상 및 패턴의 조합을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, 테라조 패턴의 높은 대비는 약시자 등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, 대비가 낮고 큰 모양으로 된 테라조 타일 사용을 권장합니다.

7) 색채 UD

편안한 느낌을 주기 위해 **따뜻한 색감의 컬러를 주조색으로 사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도록 한다.**



- 무채색을 사용하는 경우 차가운 회색(cool grey)보다 따뜻한 회색(warm grey)을 사용하는 것이 따뜻한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.
- 자연적인 색상을 사용하면 유행을 타지 않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.
- 도기 인근에는 흰색 도기와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여 약시자, 노인 등을 배려한다.



8) 식재

화장실 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 공간을 풍요롭게 만들어 **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림, 식물 등을 배치할 수 있다.**



- 실내에 식재하는 경우 자연채광이 제한되므로 전문적인 조언을 구한 후에 설치하도록 한다.
- 인공식재를 설치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실제와 비슷한 모양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.

